

## Rainy Day Fund와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방안은?

### Rainy Day Fund의 의미

-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불황에 대비한 자금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저금하여,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, 적절한 한도를 정하여 자금을 저장해 두는 재무 기법
- Rainy Day Fund(이하 RDF)가 충분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, 재정위기를 겪더라도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어 RDF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신용등급이 높아 지방채 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

### 미국의 Rainy Day Fund 현황

#### ○ 주 정부의 도입 현황

- 경기 침체와 재정 충격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RDF를 도입하며, RDF에 대한 연방 규약이 없으므로 주 정부는 각자 자율적으로 RDF를 도입 및 유지

연도	1982	1989	1997	2013	2016
RDF 도입 주	12	38	44	46	47

\* 2016년 현재 콜로라도 주, 몬태나 주, 일리노이 주 미도입

#### ○ RDF 적립재원

- 각 주 정부는 현재 RDF 규모, 최근의 세입 추세, 주(州) 경제 회복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RDF의 수준을 결정

재원	해당 주(총 38개)	주 명칭
재정흑자	21개 주	뉴햄프셔, 미네소타, 조지아, 네브래스카 등
예측오차	5개 주	네브래스카, 뉴저지, 오클라호마, 유타, 위스콘신
일시적 재원이나 고정 소요예산	8개 주	앨라배마, 아칸소, 플로리다, 메릴랜드, 미주리, 로드아일랜드, 사우스캐롤라이나, 와이오밍
없음	4개 주	콜로라도, 일리노이, 캔자스, 몬태나

#### ○ RDF 적립금 규모

- RDF는 일종의 저축액이므로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도 기금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, 너무 커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
- 주(州) 단위 RDF의 적정 수준은 주 정부의 조세수입과 경제수준에 따르며, 대부분 한도액을 정하여 RDF를 운용
- 25개 주 정부는 RDF 보유금이 전체 주 정부 지출예산의 채 5%가 안 되는 수준이며, 7개 주만 주 정부 예산의 15%를 초과하는 수준(회계연도 2013년 말 기준)
- 예산전문가들은 과도하게 RDF의 한도를 낮게 설정한 주 정부의 한도를 제거하거나 지출예산의 15% 정도로 적정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

#### ○ RDF 지출 기준

- 주 정부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, 일반회계 조세수입의 적자해소 등 RDF의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
- RDF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, 주 정부가 자주 RDF를 사용함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 저하
- 반면, RDF 사용규정이 너무 엄격히 제한된 경우, 주 정부가 적립해 둔 RDF를 실제 필요한 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
- 알래스카, 메릴랜드, 미주리 주 등은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RDF 지출이 가능하며, 애리조나, 코네티컷, 델라웨어 주 등은 RDF 지출을 위해 의회의 2/3 혹은 3/4의 승인이 필요

###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

#### ○ 도입 필요성

-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(행정자치부 주관)에서 “지방재정안정화기금”이라는 명칭으로 선택적 도입 결정
- 경제적 이유(재정자립도가 낮아 비축 재원이 부족)와 정치적 이유(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)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소극적
-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호황기 예산 낭비 및 불황기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연도 간 재정 안정화 효과에 기여 가능
-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예산의존성 및 연성예산제약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구 노력을 강화

#### ○ 도입 방안

- 지방채가 전혀 없거나, 지방세원이 지방에 위치한 핵심기업의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 높음
- 성공적인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유인 체계 구성 필요,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

#### ○ 재원 확보 및 수준

-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재원 확보처 및 확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, 재정흑자나 예측오차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
-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적립(재정흑자)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(예측오차)을 활용
- 재원의 적정 유보 수준은 다양하나 미국 사례에 따르면 자치단체 지출의 10~15% 수준을 적립한도액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, 지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 필요

▶ 내용문의 : 이희재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, 02-3488-7341, zodiac7897@krila.re.kr)

▶ 지한호 보기 :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, 바람직한 관리방향은?(이호 선임연구위원) [원문보기](#)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